

전북자치도, 법적 기반 마련 '속도' ... 최종보고회 열고 제정 필요성 등 논의
2개월 동안 연구용역 진행... 국회 협의 위한 법안 보완·조문별 근거 마련
새만금 중심 헴프 클러스터 조성... 재배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체계 구축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했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류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분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참석자들은 험프가 식품·화장품·

/이만호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헹포산업축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광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호남 광역권 반도체 포럼 · 취업페스티벌’ 개최

이날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호남권을 새로

포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지역 기업-대학 공동 연구 기반 확대 등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김영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전문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나서 호남권 반도체 기술 산업에서 반도체가 담당할 역할과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페스티벌이 진행됐다. 호남권과 수도권
의 30여 개 기업·연구소가 참여한 국
운대 ▲맞춤형 채용 상담 ▲기업 설명
회 및 모의 면접 ▲대학원 진학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페스티벌
과 함께 매스인터내셔널코리아(주), 아
진전자부품(주)와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포럼은 호남권을 대표하는 두
거점기업대인 전북대와 전남대가 협
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대학은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핵
심 축으로, 향후 광역 방산체 협력
플랫폼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다. /이만호 기자

진안 성주주조장서 제조... 영국 왕실 백화점 '해로즈'에 입점
'우리술'의 가능성, 전 세계에 각인 성과... 장인 정신의 산실

지금으로부터 백년전인 1925년에
창업한 성수주조장은 전북을 대표
하며 오직 막걸리 외길을 고집해



이러한 명가의 역작인 ‘딸기막걸리’는 전통적인 주조 방식에 진안 고원의 고당도 생딸기를 접목해 탄생시킨 우리술이다.

이번 해로즈 직수출은 단지 하나의 상품이 해외 명품 시장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넘어, 막걸리가 단순한 서민의 술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품 주류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진안=우태만 기자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 크게 손상시켜”…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

그러면서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로 지정했다. /뉴시스

고창 고향사랑기부제

연말특별이벤트

고창 愛 기부의 가치를 올리다

기 간

2025. 11. 17.(월) ~ 12. 12.(금) / 4주간

방 법

기간 내 고창군에 10만원 기부

혜 택

- **3만원 상품권 (160명)** : 고창마켓 상품권
* 주단위 40명 무작위 추첨
- **상하농원 파머스 빌리지(3명)**
: 5억원, 6억원, 7억원 달성시 기부자
* 중복지급불가

문 의

고창군 인구정책팀(☎ 063-560-2309)

고창사랑기부제

답례품 받기

군민의 정신과 자긍심 고취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론1 영상고 야구부 지원

고창 청소년 "야날장차" 프로그램

청소년 미래 육성 청소년의 꿈 지원

내 마음속 고향, 고창